

불법(佛法)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다

2. 《눈으로 본것만이 실제적이다》
는것은 과학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본것만이 실제적이다》고 생각하면서 눈으로 볼수 없는 신을 신앙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에 의해 관찰한 것이 아닌 현상에 대해 그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오늘 관찰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어제날 눈으로 보지 못한 사물이 진실한 존재라는 것을 증실하고 있다. 적외선, 자외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지만 진실한 존재이며 공기와 전자파도 눈으로 볼수 없지만 진실한 존재인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존재는 우리의 관찰능력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눈으로 볼수 없다고 승인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다.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끝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물리학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신체는

모두 세포, 분자, 원자, 전자 등 미립자로 구성되어있기에 사람이 죽으면 세포가 해체되고 시체는 풍화되지만 분자보다 더 작은 립자들은 해체되지 않는다. 원자핵이 해체분렬된다면 원자탄이 폭발한 것과 같아서 사람이 죽으면 미시적인 립자가 죄다 해체분렬될 때 상당히 큰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폭발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끝장이 아니다.

수많은 빈사(濒死)체험에 의하면 사람이 죽음으로 가까워진 순간에 매우 많은 기묘한 감각이 있으며 생명은 죽지 않았음을 느낄수 있다. 고금중외에 허다한 룬회, 전세에 대한 류전들은 물질이 불멸이라는 것을 증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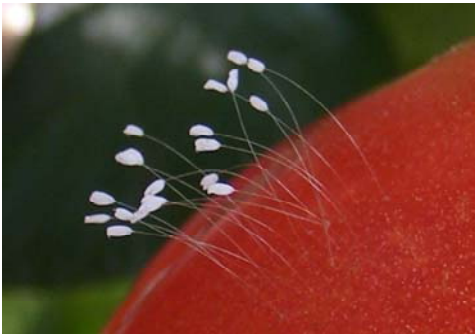
지금 과학이 증실할수 없다고 해서 믿지 않고 “자연현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을 스스로 얽매여 놓은 것이다. 과학의 제한성에 의해 아직 해석할수 없는 현상들을 탐색하여 새로운 발견을 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연길에 또다시 피여난 우담바라꽃

지난 8 월중순 길림성 연길시에 또다시 결백한 우담바라꽃이 세면트바닥과 도관, 쇠사슬, 토마토, 오이 등에 피여났다.

불경(佛经)의 기재에 의하면 우담바라꽃은 3 천년에 한번씩 피여나는데 파룬성왕이 인간세상에 내려와 정법(正法)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파룬궁은 중공의 10 여년의 모진 박해속에서 100 여개 나라에 전파되어 1 억이 넘는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으며 그들은 착한 마음으로 파룬궁진상을 이야기하며 세인들이 하루속히 각성할 것을 바라고 있다.



토마토에 핀 우담바라꽃



세면트바닥에 핀 우담바라꽃



도관에 핀 우담바라꽃



오이에 핀 우담바라꽃

력사적인 사진



1999 년, 중국 할빈 파룬궁 학원 3 만명이 체육장에서 아침런공하고 있다.

관중들의 인기를 끈 한복 (汉服) 회귀설계대상콩쿨



지난 10 월 10 일, 신당인텔레비전방송국에서 주최한 제 3 차전세계한복회귀설계대상콩쿨이 뉴욕대도회관에서 막을 열었다. 이번 콩쿨에서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의 복장특점을 살려 눈부시고 아름다운 한복의 조형, 양식, 구도로 중국전통적복장문화를 고양했다.

프랑스국민의원 기관 의식금지의안을 국회에 교부

프랑스국민의원 파렐리•보와예녀사 (오른쪽 사진)는 지난 10 월 19 일에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국회에 58 명 의원들이 공동 서명하고 등록한 립법제안을 교부했다. 이 제안은 장기간



프랑스에 거주하며 국외에서 생체의식장기를 얻은 사람들이 직접 증명한것으로 중공정부에서 파룬궁학원 생체에서 기관을 적출한 죄악을 폭로하고 제지할 것을 요구했다.

캐나다 오타와 파룬궁학원들 항의안기소 승리를 축하



2006 년에 중공악인들이 간섭하에 오타와 시장 수리팬이 비스성고급법원에 파룬궁전람을 철소할 것을 제기했다. 이 법원에서 수리팬의 제기에 동의하자 파룬궁학원들은 불복하여 상소했다. 2010 년 10 월 19 일, 이 법원에서 파룬궁학원들의 상소가 이겼다는 재판결정을 내렸다.

10 월 23 일, 오타와 파룬궁학원들이 중국 령사관앞에서, 항의안기소승리를 축하하여 “파룬따파가 좋다”, “전세계는 찌싼런을 요구한다.”,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제지하자” 등 프랑카드를 펼쳐들었다. (윗사진)

퇴당은 정치를 하는 것인가?

입당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퇴당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퇴당은 자유와 신앙에 대한 공산당의 박해를 제지시킬수 있다면 “정치”를 한다고 말할수 있다. 이런 “정치”는 백성과 민족리익에 부합되지 않는가? 한 사람의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도덕표준에 따라야 한다. “정치”를 하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 높은 각도에서 말한다면

퇴당은 더욱 심각한 의미가 있다. 공산당과 그 부속조직에 참가하여 오른손을 들고 악한 선서를 하여 수인이 찍히게 되며 중생과 신불에 큰 죄를 짓게 되니 신은 이 악마를 청산할 것이고 수인이 찍힌 사람도 함께 도태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붉은 악마를 멸망시킬때 순장품이 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중공조직에서 퇴출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 아닐수 없다.